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 조사

Unmarried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Sex and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신미아* · 최정현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Shin, Mi-A* · Choi, Jung-Hyun

Dep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unmarried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sex and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It also aimed to provide insights into how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prenatal education may be raised and to make future married couples practice prenatal education.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were 346 college students in North and South Jeolla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Important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ean knowledge of sex was .55, which was near moderate level. The mean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was 4.08, which was near high level. Knowledge of sex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sex and major, whereas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sex. Thus, it was found that when considering how to raise the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and sexual knowledge of sex, both gender and major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Keywords : knowledge of sex, prenatal education, cognition, college students

I. 서론

대학생은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친밀성은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장순복, 2002; 정덕유 외, 2008). 또한, 대학시기는 10대에서 20대의 나이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사고를 넓히고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는 등의 계획을 정립하고 미래에 담당할 자신의 역할을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시기의 대학생에게 이성교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성지식은 건강한 성인으로서 습득해야 할 성에 대한 내용이며,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생리 현상, 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인식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 성지식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이어야 한다(한상숙, 장원실, 2006).

그러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성지식을 교육받기 보다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친구, 잡지 등을 통해 주로 스스로 습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얻은 성지식이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기에 미

* Corresponding author: Shin, Mi-A

Tel: 061-450-1808, Fax: 061-450-1801

E-mail: masin@chodang.ac.kr

흡함이 있다(김성미, 2003; 전경숙 외, 2004; 최명숙, 하나선, 2004; 한상숙, 장원실, 2006; Patricia *et al.*, 1992).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지식 습득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많았는데(우남식 외, 2006) 이러한 인터넷이나 음란매체 등을 통해 정확하지 않고 자극적이며 흥미위주의 성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건전한 성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문화 형성에 있어 여러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호선민, 2009).

성지식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은 높거나(전경숙 외, 2004; 한경순, 함미영, 2000) 혹은 낮게 나타났으며(박미숙, 2002; 이혜숙, 2002; 최명숙, 하나선, 2004) 이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고 성관계 경험이 있고 성관련 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남식 외, 2006; 전경숙 외, 2004; 최명숙, 하나선, 2004).

또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지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성지식이 높게 나타났다(우남식 외, 2006). 이와같이 대부분의 성지식은 성별, 성관계경험, 성관련매체, 문화등의 차이에 의해서 높거나 낮은등의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이성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10대 후반인 대학시기의 성경험과 이로 인한 혼전임신이 증가하고 있다(박준호, 2005; 엄연선, 2009; 황인명, 2009). 이러한 계획적이지 않은 혼전임신은 임신 전부터 노출된 무분별한 약물, 흡연, 음주 등으로 태자기형, 인공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출산과 태교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결혼 및 임신을 준비하는 사전단계 시기인 대학생에게 태교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에게 있어서 태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교란 임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감정, 마음, 언행 등이 정화된 행위를 의미하며 흔히 태중교육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다(이경혜, 이영숙, 2010). 태교는 'Prenatal education', 'antenatal training', 'fetal education', 'Taigyō', 'Taekyo' 또는 'Taegyo' (문희수, 2002; 신용분, 고효정, 2000; 안기주, 2000; 연정은, 2001; 이창희, 1990) 등 다양하게 그 용어가 응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태교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첨단 의료기구의 발달로 태아의 정서적, 지적능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제시됨에 따라 현대인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태교는 임신 전, 임신 중, 분만 후 임부와 주위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와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대부분 임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신용분, 고효정, 2000).

성인 미혼남녀들은 태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교인식은 성별, 연령, 학년, 수입, 거주지역, 가족유형, 태교시행여부, 태교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다(이선아, 2001; 정현, 1999).

그러나 태교에 대해서 접할 기회나 정보등은 친구나 매체 등으로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도 일부 제한적이다. 김미옥(2004)과 이연희(2010)는 태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책이나 잡지, 인터넷이나 TV,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혼남녀들은 태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태교를 성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이선아, 2001; 이창희, 1990; 정현, 1999) 이에 대한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대처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태교는 태교의 주체와 태교의 시기에 따라 좁은 의미의 태교와 넓은 의미의 태교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좁은 의미의 태교란 태교의 주체를 임부로 보고, 태교의 시기를 태내에 있는 기간으로 제한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태교는 태교의 주체를 임부를 포함한 남편과 주위사람들까지를 포함시키고, 태교의 시기를 임신 전으로 확대시켜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임신 전 태교는 결혼상대를 결정할 때부터 시작되어 임신을 위한 생식기 건강 확인,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준비하는 등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로서(김현옥, 1997; 연정은, 2001), 소(少)자녀 시대를 추구하는 현 시대의 예비부모들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태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결혼 전부터 계획된 임신을 통하여 질병과 임신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및 결혼 전 태교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태교에 관한 국내 선행논문은 주로 임

부나 임부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다룬 개념들은 임부들을 대상으로 태교실태, 태교인식, 태교실천 등이었다.

또한 각 전공을 활용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에 대한 논문들은 간호학과를 포함한 전통식생활 문화학과, 유아교육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문희수, 2002; 배상미, 2007; 신용분, 고효정, 2000; 안기주, 2000; 연정은, 2001; 조연희, 1993; 최연순, 김현옥, 1995). 반면, 결혼 전 임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대학생이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태교 연구에는 이선아(2001), 이창희(1990), 정현(1999)의 연구 외 거의 전무한 편이다.

그러므로 남녀별, 지역별, 여성의 생의 주기별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장차 미래의 부모가 될 현 시대의 대학생이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태교인식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시절부터 태아생명존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태교의 중요성을 미리 아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태교를 성교육의 일환으로 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또 다른 역할수행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성지식과 태교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태교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이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고된 바가 없지만 혼전 성경험과 성관련 매체 경험여부가 성지식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혼전 임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태교와 관련된 개별적인 특성도 성지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서 성지식내용에 태교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연계성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성지식과 태교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미혼 대학생의 태교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지

식과 태교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미혼 대학생의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성지식과 태교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용어 정의

1) 성지식

성지식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역할, 자연의 이치 및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내용 등의 성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호선민, 2009).

2) 태교인식

대상자가 임신 전부터 아기의 출생까지 말과 행동, 마음가짐 등 모든 행위를 태중의 태아와 연관시켜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을 의미한다(문희수, 2002).

3) 태교와 관련된 특성

태교를 들어본 경험, 태교정보 출처, 태교교육의 경험 여부, 태교교육을 받은 시기, 적절한 태교시기와 태교대상자, 태아에 대한 태교의 영향정도, 태교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태교와 관련된 특성을 측정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태교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북도에 소재한 대학 중 편의추출된 C대학교, K대학, W대학에 재학중인 미혼 남녀 대학생들이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간호학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여 문항의 난이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후 설문지 문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를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수집방법은 연구자들이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익명작성과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됨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익명으로 즉시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인권보장측면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추후 문의를 위해 연구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지는 370부였으며, 이 중 기입누락이 있거나, 본 연구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기혼인 대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총 346부(93.5%)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필요한 대상자 수는 Cohen's power analysis에 따라 one-way ANOVA에서 유의수준을 .05, 효과크기(effect size)를 중간크기($f=.16$), 검정력(power value)을 .80으로 산출할 때 표본의 크기는 303명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크기 346명은 적합하다고 본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이를 간호학 및 가정학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각 문항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1) 성지식

성지식은 장원식(2005)과 호선민(2009)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한 총 29문항으로 이 문항은 성생리 7문항(정자생성, 난자생성, 발기현상, 배란일 등), 임신 및 낙태 9문항(수정란착상, 월경중단, 태아신체발생, 임신시기, 태아성별, 태아기형, 폐경, 낙태 등), 성병 6문항(매독, 에이즈, 성병치료, 태아선천성 기형, 성병면역여부 등), 피임 7문항(콘돔, 사후응급피임약, 월경주기법, 구강 피임약, 산욕기 피임 등)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아니다',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그렇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 태교인식

태교인식은 문희수(2002)와 신용분, 고효정(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태교인식 도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에게

맞는 내용으로 보완한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 태교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2) 미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태교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3) 미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은 t -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성지식과 태교인식

1) 성지식

대상자의 성지식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지식은 .55점(도구범위 0~1)으로 보통수준이었고, 이 중 성생리항목(.64점)과 임신 및 낙태항목(.57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피임항목(0.49점)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성지식

| 변 수 | 평 균(±SD) |
|------------|-----------|
| 성생리(7문항) | .64(±.25) |
| 임신&낙태(9문항) | .57(±.24) |
| 성병(6문항) | .53(±.31) |
| 피임(7문항) | .49(±.26) |
| 성지식(29문항) | .55(±.21) |

*도구범위(0~1)

2) 태교인식

대상자의 태교인식은 <표 2>와 같다.

태교인식은 평균 4.08점(도구범위 1~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2.64점, 최고 4.53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임신 중 과로는 태아에게 해롭다’가 4.53점, ‘임부는 물론 남편도 태교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가 4.47점, ‘임신 중에는 주변가족들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가 4.4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임신 중에 태아를 위하여 예쁜 아기 사진이나 그림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는 3.77점, ‘임신 중에는 책상의 모서리나 귀퉁이는 가려서 앉아야 한다’는 3.55점, ‘외형이 바르지 못하거나 반듯하게 썰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2.64점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임신시 구체적인 태도 및 자세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서는 대상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 209명(60.4%), 남학생 137명(39.6%) 이었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이 180명(52.0%), 2학년이 81명(23.4%), 3학년이 63명(18.2%), 4학년이 22명(6.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보건계열 156명(45.1%), 비보건계열 190명(54.9%)이었으며 종교는 무종교가 151명(43.6%), 기독교 115명(33.3%), 불교 41명(11.8%), 천주교 3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시 소재지 159명(46%), 대도시 101명(29.2%), 읍면리 86명(2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2> 대상자의 태교인식

(N=346)

| 세부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
| 임부의 심리상태나 건강상태는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 | 4.45 | .88 |
| 태아도 인간생명체이므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 3.89 | 1.00 |
| 임신 중 과로는 태아에게 해롭다 | 4.53 | .78 |
| 태교를 잘하면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 3.95 | 1.00 |
| 임신중에 태아를 위하여 예쁜 아기 사진이나 그림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 3.77 | 1.09 |
| 임신중에 상스런 욕을 하거나 큰소리로 싸우는 일은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좋다 | 4.41 | .87 |
| 시나 음악 등의 소리는 태아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 4.37 | .78 |
| 임신기간을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낸 임부는 총명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 3.92 | 1.03 |
| 임신중에는 주변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한다 | 4.08 | .95 |
| 임부는 화를 심하게 내거나 소리를 심하게 질러서는 안된다 | 4.23 | .90 |
| 외형이 바르지 못하거나 반듯하게 썰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 2.64 | 1.32 |
| 임신중에는 책상의 모서리나 귀퉁이는 가려서 앉아야 한다 | 3.55 | 1.25 |
| 임신중에는 높은 곳에 물건을 들어올릴 때나 위태로운 곳은 주의해야 한다 | 4.40 | .85 |
| 임신을 위한(태아인태) 부부관계시 좋은 아이를 갖기 위하여 남편 은 바른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 4.27 | .91 |
| 계획된 임신일수록 태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 3.89 | 1.08 |
| 임부는 물론 남편도 태교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 4.47 | .83 |
| 임신중에는 주변가족들의 협조와 배려과 필요하다 | 4.46 | .83 |
| 현대는 현대에 알맞은 태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4.13 | 1.01 |
| 임신중에는 성생활 조절이 필요하다 | 4.10 | .97 |
| | 4.08 | .64 |

*도구범위(1~5)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6)

| 구분 | 항목 | 빈도(%) |
|--------|--------|-----------|
| 성별 | 남 | 137(39.6) |
| | 여 | 209(60.4) |
| 학년 | 1학년 | 180(52.0) |
| | 2학년 | 81(23.4) |
| | 3학년 | 63(18.2) |
| | 4학년 | 22(6.4) |
| 전공 | 보건계열 | 156(45.1) |
| | 비보건계열 | 190(54.9) |
| 종교 | 무교 | 151(43.6) |
| | 기독교 | 115(33.3) |
| | 천주교 | 39(11.3) |
| | 불교 | 41(11.8) |
| 성장 거주지 | 읍면리 단위 | 86(24.9) |
| | 시소재 단위 | 159(46.0) |
| | 대도시단위 | 101(29.2)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t=2.704, p=.007$), 전공($t=5.288,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학생이 비보건계열학생보다 성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교인식은 성별($t=2.562, p=.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태교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일반적 특성인 학년, 종교, 성장거주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 차이

(N=346)

| 구분 | 항목 | 성지식 | | 태교인식 | |
|----|-------|----------|----------|-----------|--------|
| | | Mean±SD | t | Mean±SD | t |
| 성별 | 남 | .51(.21) | 2.704** | 3.97(.71) | 2.562* |
| | 여 | .58(.21) | | 4.15(.58) | |
| 전공 | 보건계열 | .62(.18) | 5.288*** | 4.14(.56) | 1.688 |
| | 비보건계열 | .50(.22) | | 4.03(.70) | |

* $p<.05$, ** $p<.01$, *** $p<.001$

3.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

1) 태교와 관련된 특성

태교와 관련된 특성은 <표 5>와 같다.

태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는 응답에서 ‘있다’라는 응답은 223명(64.5%), ‘없다’는 123명(35.5%)이었으며, 태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223명을 대상으로 정보 출처원을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TV, 인터넷등 매스미디어가 131명(32.5%), 가족, 친척이 95명(23.6%), 학교(선생님)이 67명(16.6%), 책과 잡지가 59명(14.6%), 강연이 25명(6.2%), 친구나 선후배는 21명(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태교교육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104명(30.1%),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242명(69.9%)이었으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104명 중 교육을 받은 시기를 질문한 결과, 고등학교 56명(52.9%), 중학교 37명(35.6%), 초등학교 11명(10.6%), 대학교 0명(0%)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교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 결과는 연구대상자 중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약간 많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태교 시행의 적절한 시기로는 임신 확인하고 바로 시행이 130명(37.6%), 임신 전부터가 85명(24.6%), 태동을 느끼면서부터가 79명(22.8%), 임신 중반기가 48명(13.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태교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임신 전부터라고 응답한 경우는 85명(24.6%)인 반면 임신 이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태교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대상자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임부, 남편, 가족이 132명(38.2%), 임부와 남편이

107명(30.9%), 임부는 69명(19.9%), 임부, 남편, 가족 및 지역사회가 38명(11.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에 들어와 태교를 임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와 가족이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 태교와 관련된 특성

| (N=346) | | |
|---------------|------------------|-----------|
| 항 목 | 구 분 | N(%) |
| 태교를 들어본 경험 여부 | 있다 | 223(64.5) |
| | 없다 | 123(35.5) |
| * 태교정보 출처원 | 가족, 친척 | 95(23.6) |
| | 학교(선생님) | 67(16.6) |
| | 책, 잡지 | 59(14.6) |
| | 매스미디어(TV, 인터넷) | 131(32.5) |
| | 친구 및 선후배 | 21(5.2) |
| | 강연 | 25(6.2) |
| 태교교육 경험 여부 | 있다 | 104(30.1) |
| | 없다 | 242(69.9) |
| 태교교육 받은 시기 | 초등학교 | 11(10.6) |
| | 중학교 | 37(35.6) |
| | 고등학교 | 56(53.9) |
| | 대학교 | 0(0) |
| 적절한 태교 시기 | 임신 전부터 | 85(24.6) |
| | 임신 후 바로 | 130(37.6) |
| | 태동 느끼면서부터 | 79(22.8) |
| | 임신 중반기(4~7개월) | 48(13.9) |
| | 임신 후반기(8~10개월) | 4(1.2) |
| 적절한 태교 대상자 | 임부 | 69(19.9) |
| | 임부, 남편 | 107(30.9) |
| | 임부, 남편, 가족 | 132(38.2) |
| | 임부, 남편, 가족, 지역사회 | 38(11.0) |
| 태교의 영향 정도 | 많은 영향 | 253(73.1) |
| | 약간의 영향 | 52(15.0) |
| | 안하는것보다 나을것이다 | 32(9.2) |
| | 미신이다 | 2(0.6) |
| | 잘 모르겠다 | 7(2.0) |
| 태교시 필요한 내용 |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 | 260(75.1) |
| | 약물복용 주의 | 49(14.2) |
| | 심한운동이나 언행주의 | 13(3.8) |
| | 성생활절제 | 4(1.2) |
| | 음식주의 | 3(0.9) |
| | 질병주의 | 17(4.9) |

* 중복응답처리

태교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253명(73.1%), ‘태아에게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 52명(15.0%), ‘태교를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가 32명(9.2%), ‘잘 모르겠다’가 7명(2.0%),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일 뿐이다’는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교내용 중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260명(75.1%), 약물복용에 주의하는 것이 49명(14.2%),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17명(4.9%), 심한 운동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13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태교를 편한 몸과 마음가짐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집단간 차이는 태교를 들어본 경험여부($t=-2.860, p=.004$), 태교 교육받은 시기($F=3.106, p=.049$), 태교 시행 대상자($F=3.910, p=.009$), 태교영향($F=2.467, p=.04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태교교육을 받은 시기에서 고등학교때 태교교육을 받은 경우가 중학교때 교육받은 경우보다 성지식이 높았으며 태교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대상자로 임부, 남편 및 가족이 임부만을 태교시행 대상자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성지식이 높았다.

태교에 대한 영향정도는 ‘미신이다’가 ‘잘 모르겠다’로 답한 경우보다 성지식이 높았다.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태교인식과 집단간 차이는 태교를 들어본 경험여부($t=-3.092, p=.002$), 태교대상자($F=5.191, p=.002$), 태교영향($F=23.512, p=.000$), 태교내용($F=4.0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태교대상자로 지역사회를 포함한 임부와 남편, 가족이 임부와 남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보다 태교인식이 높았으며 태교영향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잘 모르겠다’로 답한 경우보다 그리고 태교시 필요한 내용에서는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절제라고 답한 경우보다 태교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표 6〉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태교인식 차이

(N=346)

| 구 분 | 항 목 | 성지식 | | 태교인식 | |
|--------------------|-----|----------|----------|-----------|----------|
| | | Mean±SD | t | Mean±SD | t |
| 태교 들어본 경험 여부 | 있다 | .58(.21) | -2.860** | 4.16(.62) | -3.092** |
| | 없다 | .51(.21) | | 3.94(.66) | |
| 학교에서 태교 교육 받은 경험여부 | 있다 | .52(.22) | 1.718 | 4.02(.73) | 1.068 |
| | 없다 | .57(.21) | | 4.10(.60) | |

| 구 분 | 항 목 | 성지식 | | 태교인식 | |
|---------------|-----------------|------------------------|---------|-------------------------|-----------|
| | | Mean±SD | F | Mean±SD | F |
| 태교교육 받은 시기 | 초등학교 | .53(.20) ^{ab} | 3.106* | 3.72(1.02) | 1.77 |
| | 중학교 | .45(.23) ^a | | 3.95(.75) | |
| | 고등학교 | .57(.21) ^b | | 4.13(.63) | |
| 태교교육으로 적절한 시기 | 임신전부터 | .57(.20) | 1.152 | 4.22(.66) | 1.815 |
| | 임신확인후 바로 | .52(.23) | | 4.08(.68) | |
| | 태동느끼면서 | .56(.21) | | 4.00(.60) | |
| | 임신중반기(4~7개월) | .58(.17) | | 3.96(.54) | |
| | 임신후반기(8~10개월) | .66(.14) | | 4.12(.36) | |
| 태교시행 대상자 | 임부 | .49(.20) ^a | 3.910** | 3.99(.67) ^{ab} | 5.191** |
| | 임부, 남편 | .54(.22) ^{ab} | | 3.92(.63) ^a | |
| | 임부, 남편, 가족 | .59(.21) ^b | | 4.19(.56) ^{ab} | |
| | 임부, 남편, 가족 지역사회 | .56(.23) ^{ab} | | 4.27(.75) ^b | |
| 태교영향 정도 | 많은 영향 | .57(.21) ^{ab} | 2.467* | 4.26(.57) ^b | 23.512*** |
| | 약간의 영향 | .49(.22) ^{ab} | | 3.54(.62) ^{ab} | |
| | 안하는것보다는나을것이다 | .53(.19) ^{ab} | | 3.63(.54) ^{ab} | |
| | 미신이다 | .60(.26) ^b | | 3.29(.18) ^a | |
| | 잘모르겠다 | .41(.20) ^a | | 3.99(.48) ^{ab} | |
| 태교시 필요한 내용 |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 | .55(.22) | .815 | 4.15(.61) ^b | 4.014*** |
| | 약물복용 주의 | .58(.20) | | 3.95(.68) ^{ab} | |
| | 심한운동과 언행주의 | .55(.13) | | 3.87(.89) ^{ab} | |
| | 성생활절제 | .44(.12) | | 3.16(.33) ^a | |
| | 음식주의 | .37(.31) | | 3.98(.87) ^{ab} | |
| | 질병주의 | .57(.18) | | 3.75(.53) ^{ab} | |

주. ab: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 p<.05)

*p<.05, **p<.01, ***p<.001

4.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관계

성지식과 태교인식은 $r = .018$ 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성지식과 성지식의 하위영역인 임신과 낙태에 대한 항목은 $r = .88(p < .001)$ 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7>.

<표 7>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관계

| | 태교 인식 | 성지식 (성생리) | 성지식 (임신, 낙태) | 성지식 (성병) | 성지식 (피임) | 전체 성지식 |
|--------------|-------|-----------|--------------|----------|----------|--------|
| 태교인식 | 1 | | | | | |
| 성지식 (성생리) | .039 | 1 | | | | |
| 성지식 (임신, 낙태) | .053 | .529*** | 1 | | | |
| 성지식 (성 병) | -.016 | .412*** | .618*** | 1 | | |
| 성지식 (피 임) | -.029 | .477*** | .561*** | .661*** | 1 | |
| 전 체 성지식 | .018 | .689*** | .880*** | .834*** | .821*** | 1 |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특성 및 태교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의 예비부모인 미혼 대학생에게 임신을 계획하기 전 태교인식을 높이고 태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대학생의 성지식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성생리항목과 임신 및 낙태항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피임항목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을 알아본 황인명(2009)의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평균 30.3점(도구범위 0~40점), 전경숙 외(2004)의 성지식은 72.54점(도구범위 0~100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연구의 결과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반면, 김영희 외(2000)의 성지식 15.42점(도구범위 0~29점), 김경신(2001)의 연구의 성지식 42점(도구범위 0~100점)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중 피임과 관련된 항목은 김영희 외(200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지식이 낮은 편으로 추

후 미혼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시 남녀별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건교육 교과과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제공되어지는 피상적인 성지식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강화되어야 할 성지식 항목으로 피임방법 교육은 현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미혼모와 인공유산 감소 등의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지식 측정은 연구에 따라 도구의 성격에 따라 또는 기존 도구의 수정 및 보완에 의해서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어 성지식 수준이 낮거나 높은 편으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논문에 의해 대학생의 성지식 정도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지식을 측정할 때에는 연령별, 대상자별, 전공별 등에 따른 일반화 된 성지식 도구가 개발되어 이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측정하여 비교 및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미혼 대학생의 태교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임신시 과로가 태아에게 해롭고 태교역할에 있어 임부를 포함한 남편의 역할과 주변가족들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신 중 책상의 모서리나 귀퉁이를 가려서 앉아야 하고 외형이 바르지 못하거나 반듯하게 썰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희수(200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임신 중 피해야 될 과로나 태교대상자로서의 역할, 가족들의 배려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임신과 관련된 주의할 점들은 미신이나 어른들의 지나친 관심 또는 진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등의 일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임신시 세심하게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미신의 일부분이 아닌 자궁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태교의 한 부분임을 태교교육시 강조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진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성별과 전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임신이나 피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성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한 결과로 파악이 된다. 또한, 전공의 경우 성지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전공별 이수하는 교과과정이

다르고 보건계열은 비보건계열에 비해서 학생들이 성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더 습득하고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미(2003)와 김영희 외(2000)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지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김영희 외(2000)과 황인명(2009) 연구에서도 보건계열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시 교과과정이나 특강 및 강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을 노출시켜 성지식 습득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성교육시 성별, 전공 등의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태교인식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현(1999)과 이창희(1990)의 태교인식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태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이 임신을 계획하고 경험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태교자체를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따라서 임신은 한 여성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므로 남학생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태교와 관련된 내용을 성교육이나 특강을 통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에서는 태교를 들어본 경험, 태교 교육받은 시기, 태교 시행 대상자, 태교영향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정도를 파악한 보고가 없어 선행논문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성과 관련된 호기심이 왕성한 고등학교 시기에 태교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경우 성지식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태교교육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태교의 교육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점이 있어 보인다. 추후 반복연구를 시행할 경우 태교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식내용까지 더붙어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태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태교인식은 태교를 들어본 경험, 태교시행 대상자, 태교영향정도, 태교내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중, 태교시행 대상자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임부와 남편을 태교대상자로 생각하는 경우

가 태교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분, 고효정(2000)이 태교실천자로서 적절한 대상을 지역사회를 포함한 임부,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태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태교는 임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교시 필요한 내용의 경우,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정현(1999)의 연구에서 태교 중 필요한 내용으로 대다수가 편안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하는 정서적 안정(69.47%)을 지정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태교시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임신 중 정서적 안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생활 절제의 경우 대학생들이 임신 중 성관계가 임신 초와 임신말기에 태아에게 미치는 유산과 조산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일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고 있고(우남식 외, 2006), 미혼모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사회적인 문제(황인명, 2009)와 맞물려서 임신 및 결혼 전인 미혼 대학생들에게 태교교육시 임신과 성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넷째,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가 서두에 제기했던 태교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성지식 습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은 충족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으나 이러한 성지식과 태교인식 간에 상관이 낮은 것은 그만큼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성지식이 태교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태교인식과 성지식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내용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일반적인 해석을 위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재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제언으로 대상자의 성지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 특강 등을 통한 기회가 빈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강 후에는 대상자 성지식 정도의 평가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낮게 측정된 피임의 경우 특강이나 학교 행사시 동영상 제공과 더불어 포스터와 모형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빈번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태교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건강제공사로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계열 학과는 전공 교육내용에 태교를 포함시키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성지식과 태교인식과의 관계의 결과를 재 검증하기 위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성지식, 태교, 인식, 대학생

참 고 문 헌

- 김경신. (2001).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81-201.
- 김미옥. (2004). 현대부모의 태중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 (200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성교육 요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489-498.
- 김영희, 이인숙, 전미양, 정미숙. (2000).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82-395.
- 김현옥. (1997). 태교실천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7(2), 411-422.
- 문희수. (2002). 산모와 배우자의 태교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숙. (200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 (2005). 태교미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상미. (2007). 임부의 태교무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용분, 고효정. (2000). 임부의 태교인식과 태교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42-152.
- 안기주. (2000). 출산여성의 태교실천정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연선. (2009). 10대 미혼모사역을 통한 선교적 방안.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정은. (2001). 임신부부간의 태교인식과 실천행위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남식, 박미숙, 최왕규. (2006). 한·미 대학생들의 성지식·성교육 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4), 127-150.
- 이경혜, 이영숙. (2010). **여성건강간호학**. 서울 : 현문사.
- 이선아. (2001). 여성의 태교에 관한 인식도 조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 (2010). 대학생의 태교 및 태교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1990). 대학생의 태교에 관한 의식조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02). 일부 여대생의 성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31-144.
- 장순복. (2002).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106-115.
- 장원식. (2005).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보건증진학회지**, 21(1), 45-68.
- 정덕유, 박효정, 김미영. (2008). 여대생의 과민성 장 증후군,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306-313.
- 정 현. (1999). 성인 미혼남녀의 태교에 대한 인식도조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연희. (1993). 우리나라 임부들의 태교에 관한 인식 및 실천도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숙, 하나선. (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최연순, 김현옥. (1995). 임신부부의 태교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53-173.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한상숙, 장원실. (2006). E-Learning을 활용한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 보건증진학회지**, 23(1), 93-107.
- 호선민. (2009). 남녀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명. (2009). 중,고,대학생들의 성지식, 성적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atricia, C. D., Sharon, M. K., & Mary, A. G. (1992).
Gender-specific changes in student's sexual
behaviors and attitudes at a Southeastern
University between 1973 and 1988.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1(11), 99-104.

접 수 일 : 2010. 04. 26.
수정완료일 : 2010. 08. 22.
게재확정일 : 2010. 08. 24.